

救出作展

반디구출작전

2008.2/22금 - 3/9일

ART SPACE BANDEE

반디!
대안공간 L space bandee

감민경	강선학	강태훈	김난영	김대홍	김미애	김성계	김성룡	김성연	김수은
김영준	김윤찬	김은주	김응기	김정명	김정주	김정호	김종구	김창언	김춘자
김한나	김현식	나인주	류현욱	문진욱	박미경	박자현	박재현	방정아	백성준
사 타	석대성	설종보	성유진	손금림	손몽주	손현태	송성진	심점환	심준섭
안재국	오순환	윤필남	이건희	이선경	이은호	이인미	이인철	이진이	이창헌
이태호	임 국	전혜원	정윤선	조영희	진성훈	최규식	추의성	추화진	티나김
한성희	한영수	한충석	허위영						

대안공간 반디는 공전하는 지역미술의 한계 속에서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작가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반디가 지금까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작가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디는 최근 공간을 이전한 이후, 전시 이외에도 지역작가 해외 소개 및 작가와 일반인을 위한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각문화 분야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라는 설립취지에 의해 지금까지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만으로는 기본적 공간운영과 여러 프로그램의 운용에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전시는 이윤 추구의 목적보다는 공간운영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입니다. 반디의 정체성은 지역작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번 후원전을 시도해봅니다. 참여작가는 반디와 연관이 있었고 또 후원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의 작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만 모든 작가들을 아우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락되거나 연락이 닿지 못한 작가들께는 죄송함을 표합니다. 기금마련 자체보다는 후원의 의지와 관심을 환기하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두고 진행하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민경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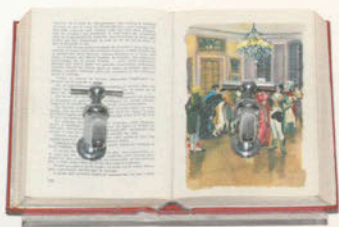
캔버스에 유화 / 91.0×65.2cm / 2008



강선학

풍경에 대해서

장지에 먹_34.5×39cm_2005



강태훈

book#3

혼합재료_31×21×10cm_2007



김난영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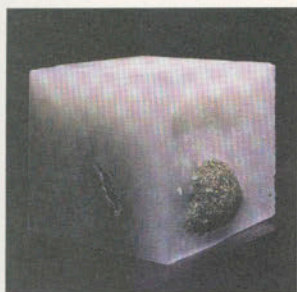
캔버스에 아크릴_53×33.4cm_2008



김대홍

무제

캔버스에 유화_90×150cm_2003



김미애

지쿠호의 기억
파라핀, 돌_12×12×12cm_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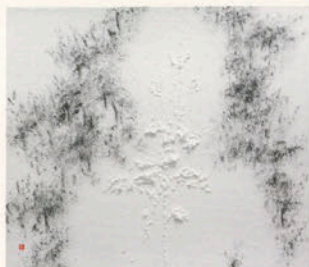
김성계

인체도
판화지에 프린팅_56×77cm_2007



김성룡

김운석
종이에 유성볼펜_120×95cm_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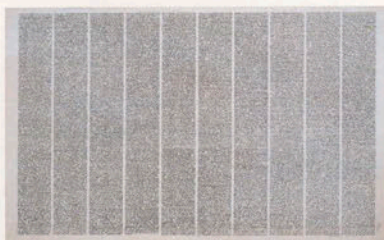
김윤찬

青春-지난 날 그 푸르름으로
한지에 수묵적혼_53×46cm_2007



김은주

꽃의 풍경
종이에 연필_75×56cm_2007



김응기

메모
혼합재료_76×47cm_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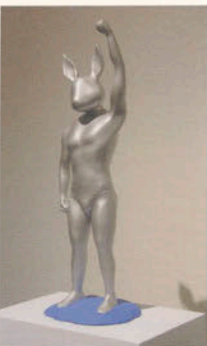
김정명

사각 속의 혼구름
36.5×16.5×26cm



김정주

Forever
수제종이, 커피_60cm×50cm_2007



김영준

무제
우레탄 레진에 채색_20×50×10cm_2007



김정호

숨속에서
m/t deep etching_60×40cm_2007



김현식

사이공간
혼합재료_2007



김종구

코끼리의 눈물
브론즈_24×20×70cm_2005



나인주

비람둥이 S씨
합판,아크릴_91×115×20cm_2007



김창언

시장의 언어
혼합재료_45.5×38cm_2007



류현욱

놀자
한지에 채색_50호_2006



김춘자

자라는 땅
종이에 아크릴_50×36cm_1999



문진욱

Xkunst
종이에 펜_40×50cm_2008



김한나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캔버스에 유화_45.5×53cm_2008



박미경

무제
종이에 펜_35×27.8cm_2007



박자현

무제

종이에 펜_63.5×56.5cm_2006



박재현

빛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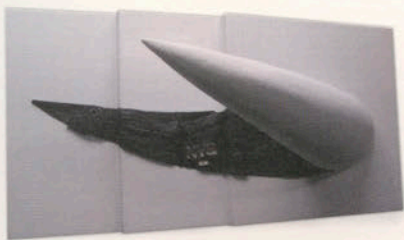
혼합재료_40×80cm_2007



방정아

July

캔버스에 아크릴_45.5×37.9cm_2004



백성준

침묵(Silence)

혼합재료_60×30×25.5cm_2008



사 타

Glass House

디지털 프린트_8×12inch_2005



석대성

Touch

철_68×50cm_2007



설종보

꽃길

캔버스에 아크릴_4호_2008년



성유진

A sound sleep

다이하루에 콩테_73×91cm_2007



손금림

Gloomy

종이,오일 파스텔,유화_110×80cm_2007



손몽주

I'm not ready

혼합재료_50×30cm_200873×91cm_2007



손현태

cup

카세트 테완_13×10×24cm_2007



오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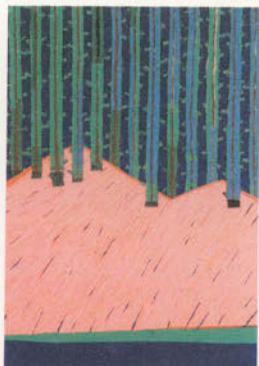
풍경

캔버스에 유화_32×23cm_2002



송성진

용호농장 용호농장314-1번지
혼합재료_122cm×63cm_2002



윤필남

Meditation

혼합재료_55×77cm_2007



심점환

나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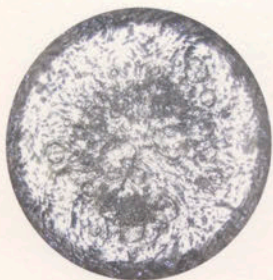
캔버스에 유화_60.5×72.7cm_2007



이건희

Rebus

수제종이에 아크릴_60×60cm_2007



심준섭

물리반응

디지털 프린트_50×50cm_2007



이선경

Face

종이에 콩테_59×131cm_2007



안재국

철제-나무

알루미늄, 동선_30×15×60cm_2007



이은호

Power fill-5

FRP, 철, 유성안료_105×25×25cm_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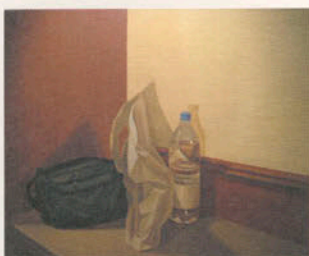
이인미

anotherframe 5
디지털프린트_50×60cm_2008



이인철

구름과 나
혼합재료_73×49.5cm_2006



이진이

인터라켄-새벽
캔버스에 유화_73×62cm_2002



이창헌

변종
아크릴_60×90cm_2007



이태호

자화상
한지에 먹_36×42cm_2004



임 국

손잡이
캔버스,아크릴_25.5cm×18cm_2007



전혜원

기억의 정물-(오렌지색전구와 얼굴)
캔버스에 유화_72.8×60.6cm_2008



정운선

사이클 프로세스-증명사진 시리즈
사진_16R_2007



조영희

실크, 양모펠트_40×110cm_2007



진성훈

무제
자점토_31×40cm_2007



최규식

달리보기

혼합재료_35×23×5cm_2005



추의성

극장-풍경별곡

캔버스에 아크릴_90×72cm_2006



추화진

내 동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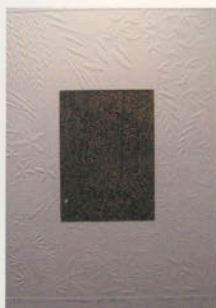
골판지_34cm×27cm_2008



티나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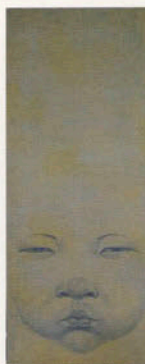
영주동-우연히 만난 풍경

캔버스에 아크릴_90cm×72cm_2007



한성희

deep etching
embossing_2007



한충석

갑쟁이

광목천에 아크릴, 연필_120×50cm_2007



허위영

테라코타

23×14×14cm_1990

김성연

한영수

반

디

救

出

作

展

대안공간 반디

설립연도

- 1999년 대안공간 섬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아트타운 6층)
- 2001년 재정난으로 잠정활동 중지
- 2002년 대안공간 반디로 재개관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134-26 2층)
- 2007년 공간 이전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169-44 1,2층)

활동

- 현재까지 약 100회의 전시와 다수의 프로그램 기획
- 1999년 개관전〈맥락과 징후〉 외 전시 5회
- 2000년 박상호 개인전 외 전시 약 17회
- 2002년 개관기념전〈Microcosm〉
- 2003년 〈도시의 기억과 상상전〉 외 전시 10회
- 2004년 제1회 부산비디오 페스티벌 외 전시 11회
- 2005년 평론가 이동석 추모전〈MemoLee〉 외 전시 16회
- 2006년 〈Moving windows_동시대 젊은 비디오작가전〉 외 전시 13회
- 2007년 〈목욕탕 프로젝트_때를 벗기다〉 외 전시 12회

전시 프로그램

- 유망작가 지원프로그램(년 5-6회의 전시와 지원)
 - 실험적, 창의적인 유망작가 지원 및 전시공간 제공
- 신진작가 및 전시기획자 발굴프로그램(년 1-2회의 전시와 지원)
 - 신진작가와 기획자를 발굴하여 전시기회를 제공하고 창작활동을 지원
- 다시 보는 작가 프로그램(년 1-2회의 전시와 지원)
 - 과거 반디에서 전시한 작가 혹은 중견작가를 선정하여 재조명하는 전시
- 기획전 및 특별전(년 2-3회)
 - 현대미술의 다양한 담론과 이슈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획전 및 특별전
- 부산 국제 비디오 페스티벌(년 1회)
 - 동시대 영상미술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공모와 추천방식으로 진행되는 국제 단채널 영상페스티벌

기타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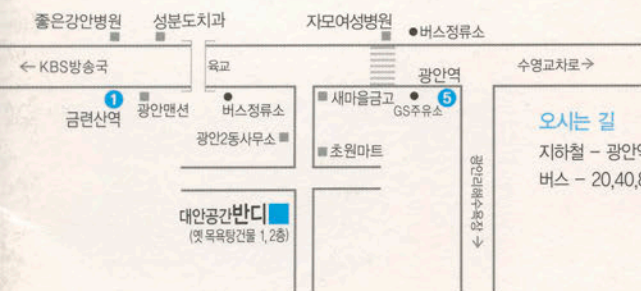
- 작가워크숍
- 교육프로그램
- 아카이브

space bandee

대안공간반디는 공전하는 지역미술의 한계 속에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대안적, 발전적, 진보적 미술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전시공간입니다.

1999년 개관한 '대안공간 섬'의 연장선에서, 전시, 교육프로그램, 신진작가 및 기획자 발굴, 세미나, 작가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통해 자생적인 동시대 미술담론을 지원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대안공간 반디는 권력적 관습, 체제, 미학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작과 비평을 지원하고 지역의 시각문화를 풍성하고 다원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건강한 담론을 유포하는 진원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는 길

지하철 - 광안역 5번 출구, 금련산역 1번 출구, 지하철 역에서 10분 거리
 버스 - 20,40,83,108,51,139,140 공무원 교육원, 수영중학교 하차

救出작展

반디구출작전

2008.2/22금 - 3/9일

ART SPACE BANDEE

반디!
대안공간 L space bandee

김민경	강선학	강태훈	김난영	김대홍	김미애	김성계	김성룡	김성연	김수은
김영준	김윤찬	김은주	김응기	김정명	김정주	김정호	김종구	김창언	김춘자
김한나	김현식	나인주	류현욱	문진욱	박미경	박자현	박재현	방정아	백성준
사 타	석대성	설종보	성유진	손금림	손몽주	손현태	송성진	심점환	심준섭
안재국	오순환	윤필남	이건희	이선경	이은호	이인미	이인철	이진이	이창현
이태호	임 국	전혜원	정윤선	조영희	진성훈	최규식	추의성	추화진	티나김
한성희	한영수	한충석	허위영						